

‘함께하는 아름다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소식

부평제일교회 선교팀과 함께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부평제일교회 청년부 선교팀이 카코가와를 중심으로, 일본 간사이 지역을 선교여행으로 방문했습니다. 선교팀이 방문하기 전부터, 토요일마다 온라인을 통해 선교팀과 만났습니다. 일본에 있었지만, 일본에 대한 개관, 한국 선교의 역사와 팀 역할에 대해 강의를 하며 팀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평제일교회 선교팀과 카코가와 메구미교회가 함께 예배 드린 7월 2일 주일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교팀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특별 찬양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있던 성도들까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평제일교회 이회욱 전도사님이 ‘복음의 오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준호 선교사가 통역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조별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주변 지역을 다니며 우편함 전도를 함께 했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청년들은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난 후에는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웃음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각자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였지만, 풍성히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문화와 국적, 그리고 언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달았습니다.



▲ 선교팀의 특송



▲ 선교팀과 함께 한 전도



▲ 일본인 종교 리서치(교토)



▲ 오사카 영광교회에서의 전도

셋째 날, 선교팀은 교토로 이동해 일본인들의 종교 생활을 리서치했습니다.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일본인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일본에 우상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청년들이 조사한 것을 발표할 때에는, 저도 몰랐던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선교팀은 카코가와를 떠나 오사카로 이동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선교팀은 일본 교회를 섬기며 함께 전도했습니다.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같은 교구에 있는 ‘오사카 영광교회’를 찾아가, 함께 전도하며 섬겼습니다. 오사카 영광교회의 츠치야(土屋) 목사님은 선교팀과의 만남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지, 역까지 마중을 나오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츠치야 목사님을 비롯한 일본의 목회자들을 잘 돕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영광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35도에 가까운 무더위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더웠던 탓인지 한 자매가 일사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 병원에서 외국인 대응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분이 여러 수속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속이 마무리되어 갈 때 쯤, 저희에게 ‘크리스천이십니까?’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 일본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번 선교팀의 일정은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선교팀의 방문으로 우상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일본어로 예배 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눔으로써 복음 안에서 함께 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일본에 와서 사랑으로 섬겨준 부평제일교회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유스 잼(Youth Jam) 준비!



▲ 키키교구 프레젼

다가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홀리네스 교단 전국 청소년 청년 수련회 유스 잼(Youth Jam)이 도쿄에서 열립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에서는 코다마 리리코 자매(고3)가 참석합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준호 선교사는 키키교구 목회자 대표의 일원으로 선발되어서, 유스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스 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 지난 17일 오사카 교회에서 키키교구 프레젼이 열렸습니다. 간사이지역 각지에서 청년·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교제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같은 교구의 청년·청소년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 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스 잼에 참여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응답!

지난 5월 갑작스럽게 파상풍으로 입원했던 타케모리 상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고, 저희 카코가와 성도들도 매주일 예배 후, 함께 타케모리상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높은 치사율 탓에 장례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기도 가운데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케모리상은 7월 초 의식을 되찾았고, 그 이후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7월 중순에는 파상풍의 치료가 끝나서, 재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 기도편지를 보내 드리기 직전인 지난 7월 25일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이제 함께 카코가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케모리 상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타케모리상 가족

선교사 자녀 여름캠프 COG

그동안 기도를 부탁드렸던 선교사 자녀의 여름캠프인 COG(Child of God)이 25일부터 27일까지 아이치현 가마고리시(蒲郡市)에서 열렸습니다. 3가정의 선교사, 5명의 아이들이 모여 2박 3일동안 열린 여름 캠프에서 아이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각지(카코가와, 도쿄, 나고야)에서, 17개월의 쌍둥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이 모여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여름캠프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일본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가마고리까지 4시간을 운전해서 왔지만, 민하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뛰면서 찬양하고,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희 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공과공부



▲찬양시간

이 COG는 이사야서 54장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의 나라 일본에서 선교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5명의 아이들이 모였지만, 캠프 기간 모두가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야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함께 모인 부모들은,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며, 일본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COG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 COG 단체 사진

COG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COG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COG의 지경이 넓혀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선교팀을 통해 우리는 한 형제임을 느끼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2. 타케모리 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3. 유스 잼을 통해 일본의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4. COG 여름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5. 8월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 후원안내

○ 현지 연락처 :

이준호 : 080.4188.2604

카톡ID directed

황명아 : 080.7583.1855

카톡ID grace82gby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